

여가인식과 활용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황현석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A Study of the Factors Affecting Leisure Recognition and Leisure Use

Hyun-Seok Hwang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Hallym University

요약 소득이 높아지는 현대사회에서의 여가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과거와는 다르게 여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여가 활용에 대한 욕구는 점점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현대 사회인들은 여가를 통해 삶에 대한 만족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여가에 대한 올바른 정책이 필요하고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또한 여가활동에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가정책이 여가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여가정책이 민간 여가시설 만족과 공공 여가시설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으며 나아가 변화된 여가인식과 여가활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모형을 수립한 후 관련 설문지 문항을 통해 탐색적 요인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가정책은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에 대한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여가인식과 여가활용에, 민간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여가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변인 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변인들이 매개를 통해 여가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가 가지는 함의를 결론과 함께 제시하였다.

Abstract Modern society features rising incomes, and recreation is considered very important. Unlike the past, the desire for cognition and leisure is expected to accelerate. In addition, modern society realizes life satisfaction through leisure. Therefore, leisure policy is needed to ensure universal access, and facilities for leisure activities are also important factors for leisure activities. Therefore,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effects of leisure policy on leisure facility satisfaction, and leisure facilities were classified into public facilities and private facilities. In addition, we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perception and leisure use. After establishing the research model, we conducte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based data obtained from questionnaires. Results found leisure policy has a positive effect on satisfaction with public facilities and private facilities, satisfaction with public facilitie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leisure perception and leisure utilization, and satisfaction with private facilitie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leisure perception. Finally, we analyzed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parameters, analyzed the effects of the mediating effects on leisure utilization, and presented results.

Keywords : Leisure, Leisure Policy, Leisure Recognition, Private Leisure Facilities, Public leisure Facilities

1. 서론

현대사회는 여가를 중시하고 소비하는 사회로 발전해 왔다. 현대사회에서의 여가는 사람들의 생활과 삶의 내

용과 질의 변화를 가지고 왔다. 사회가 안정화 되고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국가가 부유해 질수록 사람들의 여가에 대한 인식과 욕구는 더욱 커지고 가속화 될 전망이다[1].

이 논문은 2017년도 한림대학교 교비연구비(HRF - 201708 - 005)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Hyun-Seok Hwang(Hallym Univ.)

Tel: +82-33-248-1835 email: hshwang@hallym.ac.kr

Received November 9, 2017

Revised (1st January 15, 2018, 2nd January 24, 2018)

Accepted February 2, 2018

Published February 28, 2018

이와 같이 여가는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가 활동을 통해서 삶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삶의 만족감을 안겨주는 여가 활동을 위한 정책들이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논다’, ‘돈이 많이 든다’, ‘공간이 부족하다’ 등으로 여가를 인식함으로써 하나의 정책영역으로 발전하는 걸림돌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건전한 여가 문화를 형성하고 모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여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여가정책이 필요하다.

여가 활동의 한 영역인 여가스포츠 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상호관계 속에서 사회적 발달을 촉진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준다[2]. 또한 여가스포츠 활동은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자아 형성과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건전한 여가선용 및 지역사회 통합에 있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3].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여가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의 활용이 중요하다. 민간시설이나 공공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뛰어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여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며 더욱 더 자신의 여가 활용 시간을 늘려갈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여가 활동을 함으로써 얻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여가 활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 여가 활동의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인식이란 행동 유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여가 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여가 활동 증진이라는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가에 대한 인식과 여가 활용에 미치는 요인들을 여가정책, 공공시설과 프로그램 만족도, 민간시설과 프로그램 만족도로 설정하고 그 구조적인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관련 연구

2.1 여가를 위한 정책적 지원

여가정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여가활동에 대한 공적인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가 정책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범위나 한계를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여가 정책은 정책과 정치체제에 영향을 받아 언제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관계와 청소년,

여성, 노인, 도시환경, 교육, 복지 등 많은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여가정책의 최종목표는 국민 생활의 질적인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4].

이처럼 여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선 연구들은 여가지원 정책을 구성하는 많은 변인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하였으며 여가정책이 여가활동과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 삶의 질 향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Lee (2002)은 여가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를 확립 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여가생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제시한 바 있다 [5]. 구체적으로 특별한 계층만 정책의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소외되는 계층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구체적인 제도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Park & Lim (2014)의 연구에서도 여가 양극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제시한 바 있으며[6], Park (2013)은 여성에 대한 여가정책 수립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논의한 바 있다[7]. 또 다른 측면으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 가족 여가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현재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며 가족 여가정책 시행의 중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으며, Choi (2014)는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가산업 및 여가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8]. Noh (2003)의 연구에서는 여가 관련 연구기관의 설치 및 전문가 양성, 여가 공간과 시설의 구축과 확충, 다양한 여가 콘텐츠 개발, 여가 문화 설립 센터 설립 등의 향후 방향을 제시하였다[9].

여가를 즐기는데 부정적인 요인으로 여가제약의 개념이 사용되는데 제약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구조적 제약을 언급되고 있다. 구조적 제약은 여가를 즐기기 위한 정보, 환경적, 정책적인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10]. 적절한 여가 정책을 수립하여 여가 제약을 줄임으로써 여가 만족을 증대시키고 여가를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주장이 많은 연구에서 제기되었다[11-14].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는 여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범위를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으로 구분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여가 사용자가 저렴하고 공공의 이익에 맞게 설계된 공공부분의 여가 시설과 개인의 변화하는 트렌드에 따라 맞춤형된 민간부분의 여가시설이라는 차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가 정책의 영향을 받는 공공부분의 이용에 따른 만족과 민간부분의 이용에 따른 만족으

로 세분화 하고 여가정책(법규, 제도, 시설, 프로그램 등) 개선이 여가 생활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1 : 여가정책지원은 민간시설 및 프로그램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 여가정책지원은 공공시설 및 프로그램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공공시설 및 프로그램 만족도

본 연구는 여가 활용 시설을 공익적 시설로 저렴하고 대중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과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과 최신의 트렌드에 민감하며 변화하며 고객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민간시설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공공시설 및 프로그램의 구성은 여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공스포츠 시설과 관련해 Jeon (2010)은 여가스포츠 경험이 개인의 생활만족과 효능감, 사회적 관계 그리고 자아확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한 바 있다[15]. Hong & Kim (2016)의 연구에서는 여가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저해요인으로 개인, 대인, 구조적 저해요인 3개의 변인과 이용시설 저해와의 관계를 논의한 바 있다. 이 중 구조적인 저해요인은 시설의 접근성과 불편한 건축시설물의 문항을 사용하여 구조적 저해요인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구조적인 저해요인은 여가복지시설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6]. 또한 Park (2005)은 시설에 의한 제약을 물리적 제약으로 설정하였고, 시설의 복잡성과 이용에 불편한 정도를 문항으로 측정하여 시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다[17].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은 이용자들의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기도 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도 한다. 즉 직원들의 태도나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신뢰,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기획, 실천성 등에 대한 만족이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하고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18]. Lee & Jeon (1999)의 연구에서 이용자들의 이상적인 공공시설에 대한 검증을 질적 연구를 통해 시행하였다. 그 결과 환경적 요인과 프로그램에 관한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즉, 공공시설은 상대적으로 깨끗하지 않다거나 프로그램이 빈약하다는 등의 부정적 인식을 제거하고 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재미와 활

동 동기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공공시설 이용 동기에 충분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19].

이처럼 공공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제약이 있다면 사람들은 여가활동에 대한 동기부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실제 여가활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공공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은 여가활동과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가 시설의 만족도를 통해 여가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거나 심리적인 변화를 통해 여가시설의 이용으로 이어지는 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다.

여가인식의 변화를 통한 여가 이용을 여가유능감이라는 심리적인 변화가 매개되어 이루어지는 연구[20]와 여가참여에 따른 만족을 통해 자아존중감이라는 심리적인 변화를 통해 여가이용으로 이어지는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21].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의 이용에 따른 만족이 여가활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연구는 존재하나 여가인식의 변화를 통해 여가활용에 주는 가능성에 대한 고찰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은 여가 활동에 대한 인식과 여가활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고 아래와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3 : 공공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은 여가활동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 공공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은 여가활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민간시설 및 프로그램 만족도

민간 여가활동 공간과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삶의 질 및 신체적인 건강과도 관련되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 여가활동 공간 및 서비스에 관한 연구는 매우 다양하다. 스포츠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스포츠 여가가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원만하고 건강한 대학생활을 하는 데에 기여한다고 연구된 바 있다[22]. 즉,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신체적인 건강 증진이 목표인 스포츠 여가활동을 통해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건강도 증진시켜 사회적인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Cho & Lim (2008)의 연구에서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레슨, 직원의 친절도와 같은 것이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

바 있다. 여가활동 시설에서 제공하는 레슨이나 서비스가 좋을수록, 강사나 직원이 친절할수록 여가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23]. 또한 스포츠 여가시설을 이용할 때의 여가계약에 대한 연구에서는 한 스포츠에 전문화 정도에 따른 차이가 있었지만 시설요인이 여가계약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즉 개인의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집단으로 보았을 때, 시설요인이 여가생활을 제약할 수 있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24].

스포츠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여가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볼링에 관한 연구에서는 정서적, 사회적, 환경적인 여가만족요인이 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하였다[25]. 즉 민간 여가공간에서의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이 또 다시 방문하여 여가활동을 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여가활동 공간으로 이용하는 찜질방을 대상으로 여가만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환경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과 관련된 여가 경험이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26]. 대표적인 여가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테마파크는 테마파크 서비스에 대한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혁신성, 공감성의 변인이 서비스 만족과 재방문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27].

또한 민간 여가활동은 청소년의 문화 활동, 사교 활동, 취미 활동 등의 여가프로그램 참여는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쳤고[28],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 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쳤다[29]. 이처럼 민간 여가활동 공간과 서비스는 넓은 범위에서 여가활용 및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 시설 및 프로그램이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과 여가활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아래와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5 : 민간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은 여가활동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 민간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은 여가활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여가인식

일반적으로 알려진 태도 형성 요소는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3요소이다. 여가에서의 태도 또한 이 3요소를 근원으로 하고 있으며 여가인식은 3요소 중 인지적 요소로

간주할 수 있다[30, 31].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은 여가생활 만족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여가활동의 인식을 기능적 측면에서 연구한 Jeong & Won (2002)의 연구에서는 자기실현적, 사교적, 건강, 경제적,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인식이 여가생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31]. 또한 Choi 외 (2010)의 연구에서는 여가인식이 이용자의 여가 유능감과 여가지속, 그리고 삶의 질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32]. 즉, 여가가 자신의 삶에 순기능을 할 것이라고 인식한다면 여가 활동이 지속될 수 있고 여가활동에 유능감과 만족감을 느끼며 여가활동이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인식에 대한 연구로 여가활동 조직원들의 자신을 향한 존중감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가 있다. 여가활동 서비스 조직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있다고 인지하게 될 경우 감정적인 충성도와 지속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친다[33].

또한 삶의 만족과 관련한 Woo & Hwang (2015)의 연구에서 여가만족, 여가몰입,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진지한 여가를 변인으로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네 가지 변인 중 여가만족이 삶의 질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4].

앞선 선행연구들은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이 서비스에 대한 충성도와 만족, 지속사용 및 참여에 대해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또한 여가활동을 통한 만족은 삶의 질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여가인식은 여가참여나 여가활동 수행에 이르는 중간 매개 요인으로 사용되는 몇몇의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21, 35, 36].

따라서 본 연구는 인식이 여가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H7 :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은 여가활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수행된 연구를 종합하여 Table.1과 같이 변수와 그 조작적 정의를 작성하였다.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s of Variables

Variable	Operational Definitions	Related Works
Leisure Policy(LP)	Government policy to stimulate leisure activities	[4][6-7][9]
Facility & Program Satisfaction	Private (Pri) Satisfaction with facilities and program providing private leisure service	[15-19]
	Public (Pub) Satisfaction with facilities and program providing public leisure service	[22-28]
Leisure recognition (LR)	The necessity and influence of leisure activity that individual feels	[30-34]
Leisure activities (LA)	Activities in free time, excluding mandatory activities	[12][36-39]

3.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앞선 선행연구를 토대로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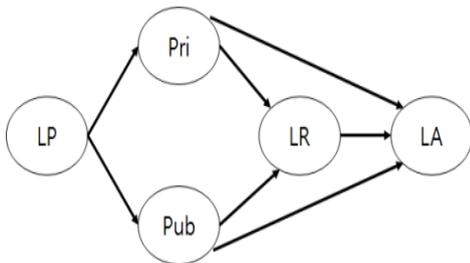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생성한 후에 요인들간의 직접적인 요인 이외에 간접적인 영향이 유의하게 존재하는 지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간접효과를 설정하였다.

- H8: 여가정책은 공공시설 및 프로그램 만족도를 통해 여가인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9: 여가정책은 민간시설 및 프로그램 만족도를 통해 여가인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0: 여가정책은 공공시설 및 프로그램 만족도를 통해 여가활용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1: 여가정책은 민간시설 및 프로그램 만족도를 통해 여가활용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2: 공공시설 및 프로그램 만족도는 여가인식을 통해 여가활용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3: 민간시설 및 프로그램 만족도는 여가인식을 통

해 여가활용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실증분석

4.1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시행한 “2016년 국민여가활동조사” 설문에서 집계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조사기간은 9월~10월까지이며, 설문조사는 만15세 이상 10,6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4.2 잠재요인 타당성 분석

분석에 앞서 요인들에 대한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SPSS Statics 21.0와 AMOs 20.0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가정책, 민간만족도, 공공만족도, 인식, 여가활용을 설명하는 변인들이 체계화 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모든 항목의 Cronbach α 값이 모두 .7이상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평균분산추출량(AVE)은 .5 이상, 개념신뢰도는 .7 이상으로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Table.2는 요인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Table 2. EFA and Reliability analysis

Factor Var.	F1	F2	F3	F4	F5	α
LP 1	.825	.045	.168	.125	.027	0.927
LP 2	.821	.031	.160	.150	-.013	
LP 3	.811	.063	.155	.116	.044	
LP 4	.782	.039	.208	.210	.024	
LP 5	.778	.037	.216	.191	.032	
LP 6	.778	.061	.201	.158	.021	
LP 7	.745	.033	.244	.234	.065	
LA 1	.028	.870	.081	.040	.043	0.89
LA 2	.063	.863	.047	.048	.028	
LA 3	.027	.861	.055	.066	.050	
LA 4	.075	.852	.087	.025	.011	
Pub 1	.286	.061	.813	.155	.014	0.881
Pub 2	.347	.072	.789	.161	.034	
Pub 3	.171	.097	.781	.196	.142	
Pub 4	.302	.104	.758	.204	.057	
Pri 1	.252	.074	.264	.804	.073	0.851
Pri 2	.291	.050	.191	.793	.061	
Pri 3	.326	.074	.211	.779	.073	
LR 1	.032	.041	.070	.084	.919	0.835
LR 2	.055	.070	.095	.063	.914	
Eigen value	7.606	2.904	1.798	1.438	1.166	
variance extracted %	24.909	15.167	14.595	11.226	8.664	

KMO'S MSA 0.894, Bartlett's test 0.001 < p-value

또한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기에 앞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3은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나타냈었다. 각 관측변수별로 연구에 사용된 설문문항의 문항번호를 병기하였다.

Table 3. CFA

Factor	variable (Questionnaire ID)	Standard.Coefficient	S.E	AVE	Construct Reliability
Leisure Policy (LP)	LP1(Q27A1)	0.793	0.459	0.594	0.911
	LP2(Q27A2)	0.813	0.395		
	LP3(Q27A3)	0.813	0.518		
	LP4(Q27A4)	0.786	0.478		
	LP5(Q27A5)	0.804	0.433		
	LP6(Q27A6)	0.815	0.406		
	LP7(Q27A7)	0.798	0.4		
Satisfaction of private facilities (Pri)	Pri1(Q21A1)	0.831	0.37	0.658	0.852
	Pri2(Q21A2)	0.811	0.379		
	Pri3(Q21A3)	0.826	0.306		
Satisfaction of public facilities (Pub)	Pub1(Q18A1)	0.861	0.337	0.600	0.857
	Pub2(Q18A2)	0.827	0.446		
	Pub3(Q18A3)	0.799	0.467		
	Pub4(Q18A4)	0.733	0.484		
Leisure activities (LA)	LA1(Q13A2A1)	0.821	0.44	0.593	0.809
	LA2(Q13A2A2)	0.834	0.432		
	LA3(Q13A3A1)	0.813	0.442		
	LA4(Q13A3A2)	0.805	0.522		
Leisure recognition (LR)	LR1(Q29)	0.794	0.28	0.770	0.869
	LR2(Q30)	0.903	0.153		

4.3 구조방정식 모형검증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 여가정책은 민간만족도와 공공만족도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공공만족도는 인식과 여가활용 모두에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p<.001), 민간만족도는 인식에만 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p<.001), 여가활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마지막으로 인식은 여가활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Tabel.3는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나타내며 Fig.2는 최종모델의 분석결과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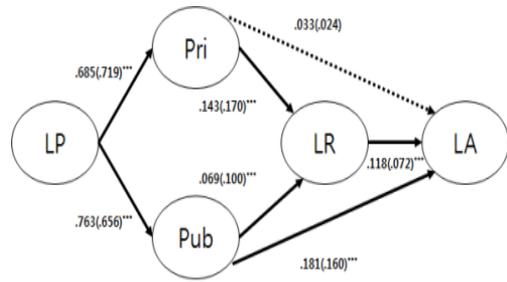


Fig. 2. Analysis Result

각 경로별로 경로계수와 t-value, p-value 를 가설의 검정결과와 함께 Table.4 에 나타내었다.

Table 4. Path Analysis

	Path	Estimate	S.E.	C.R.	P-value	Result
H1	LP → Pri	0.685	0.018	38.617	<0.001	Supported
H2	LP → Pub	0.763	0.021	36.817	<0.001	Supported
H3	Pub → LR	0.069	0.015	4.642	<0.001	Supported
H4	Pub → LA	0.181	0.021	8.504	<0.001	Supported
H5	Pri → LR	0.143	0.019	7.448	<0.001	Supported
H6	Pri → LA	0.033	0.026	1.244	<0.214	Not Supported
H7	LR → LA	0.118	0.027	4.310	<0.001	Supported

Table 5.는 모형의 종합적인 적합도를 보여준다. 대부분 권장수준을 상회하여 연구모형이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Table 5. Model Fit

Fit Index	Model	Recommended Level
χ^2/df	8.036	-
Goodness Fit Index	.965	>.90
RMSEA	.043	<.05
RMR	.044	<.05
SRMR	.0051	<.10
Normed Fit Index	.974	>.90
Non Normed Fit Index	.973	>.90
Comparative Fit Index	.977	>.90

4.4 매개효과검증

공공시설과 프로그램 만족도, 민간시설과 프로그램 만족도가 인식을 매개하여 여가활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과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여가정책은 민간만족도와 공공만족도를 매개하여 여가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공공만족도는 직접적으로 여가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식을 매개하여 여가활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p < .001$)). 민간만족도는 여가활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만 ($p > .05$), 인식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그 결과를 Table.6에 제시하였다.

Table 6. Mediated Effect Analysis

LA(n=1,921)	Pub	Pri
Direct effect	0.181***	0.033
Indirect effect	0.009***	0.017***
Total effect	0.190***	0.050***

*** p-value<0.001

5. 결론

본 연구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여가활동 참여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여가정책, 공공만족도, 민간만족도를 선행 요인으로 설정하여 인식과 여가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정책은 공공만족도와 민간만족도 모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여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생활의 질적인 향상에 있다. 즉 공공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민간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가정책은 공공만족도와 민간만족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여가활동을 촉진시켜 국민생활 질적인 향상에 도움을 준다. 몇몇 선행연구에서 설명하듯 구체적으로 특별한 계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소외 계층을 위한 정책을 실행함과 더불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을 위한 정책, 또 공공/민간 시설을 사람들에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정책들은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여준다. 즉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여가정책은 사람들의 여가활동을 촉진시키고 여가 시간을 더욱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

둘째, 공공만족도는 여가 활동 인식과 여가활용에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공공만족도는 공공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이다.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등과 재미와 활동 동기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사람들에게 공공만족도를 높여준다. 앞서 설명한 Lee & Jeon (1999)의 연구에서는 공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적 요인과 프로그램에 관한 요인이 중요하다고 밝혔다[19]. 즉, 공공시설이 깨끗하고 접근성이 좋고,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동반된다면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이러한 만족도로 인해 공공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이 좋아진다는 것이다. 또 좋아진 인식은 사람들의 공공시설 이용 동기를 높여주며 만족스러운 여가 활동을 제공한다.

셋째, 민간만족도는 여가 활동 인식에는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여가활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민간만족도는 민간 여가활동 공간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이다. 몇몇 선행연구들에서는 민간 여가활동 공간과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신체적, 정서적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민간시설에서 제공하는 좋은 스포츠 시설과 관련 서비스가 여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던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민간시설에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제약이 없고, 제공하는 서비스나 레슨이 수준이 높고 강사들이나 직원들이 친절할수록 여가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즉 민간 여가 공간에서 여가 만족도를 느끼면 민간 여가 공간에서 제공하는 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게 된다. 하지만 민간 여가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여가활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여가 인식을 매개해서 활용에 영향을 미쳤다. 즉, 민간시설에서의 만족도를 통해 여가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활용으로 이어진다는 결과다. 민간시설은 주로 일정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도 비용에 대한 보상심리가 어느 정도 작용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만족도를 통한 이용자의 여가에 대한 인식이 생기지 않으면 여가 활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은 여가활용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여가가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순기능을 할 것이라고 인식한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여가 활동 시간을 늘릴 것이다. 또 앞서 설명한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과 같은 서비스 조직에서 만족도를 느끼고 좋은 인식이 생기면 그 여가 활동 공간과 서비스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게 되며 여가 활동을 더욱 즐긴다는 것이다. 즉 여가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인식을 하

면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여가 시간을 더욱 많이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가 활동에 대한 인식과 여가활용에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였고, 그 결과 여가 활동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더 나아가 여가활용을 늘리고자 한다면 여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여주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즉 여가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좋은 여가 정책을 실행해야 하며,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은 이러한 여가 정책을 활용하여 모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시설,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여가 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과 여가 활동의 참여 및 여가 활용 시간에 대한 증가를 원한다면 우선 사람들의 만족도를 고양시켜야 한다는 것이 연구의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가 활동에 대한 인식과 여가활용에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데에 여가시설을 구분하여 여가에 대한 정책과, 여가인식의 관계와 여가활용까지의 매개효과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매개효과가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면 공공시설과 프로그램 만족도는 직/간접적으로 여가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공공부분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향상시키면 직접적인 여가활용으로 이어진다는 사실과 함께 여가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여가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한편 여가인식이 여가활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여가활용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면서 동시에 매개요인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민간시설과 프로그램의 경우 직접적으로 여가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여가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통해 간접적으로 여가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런 결과에서 민간시설과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노력은 곧바로 여가에 직접적인 활용도를 높이는 수준으로 이어지지는 못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가의 필요성이나 중요성, 민간여가 시설의 활용 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함의를 현실적 관점과 정책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먼저 현실적 관점에서 함의는 여가활용을 늘리기 위해 민간시설의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민간시설과 프로그램 만족도가 직접적으로 여가활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민간시설

의 이용편의성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수강료/이용료 지원, 접근성 향상, 소득에 따른 바우처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직접적인 여가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정책적 관점의 함의는 여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여가 활성화 정책은 공공과 민간 시설의 이용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여가 활용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여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여 여가활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결과, 민간만족도가 여가활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민간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통해 여가인식을 높일 수 있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민간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여가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S. J. Han, Y. J. Cho, "Leisure Policy Directions according to the Changing Leisure Activity", GRI REVIEW, vol. 12, no. 1, pp. 213-232, 2010.
- [2] H. S. Jeon, "An Influence of Leisure experience of a person who takes part in leisure sports on Lif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leisure & recreation, vol. 34, no. 4, pp. 103-112, 2010.
- [3] S. H. Shin, I. Y. Oh, "Future Prospects of Sport Industry Based upon Five-days Working System per Week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port Management, vol. 6, no. 2, pp. 205-221, 2001.
- [4] Y. K. Noh, "Current Status and Tasks of Leisure Policy", Academic seminar resource book of Korean society of leisure & recreation, vol. 2013, no. 1, pp. 33-41, 2013.
- [5] C. W. Lee, "Research bulletin : Leisure Policy", The Newsletter of Korean Society, of leisure & recreation, vol. 5, pp. 6-10, 2002.
- [6] J. W. Park, S. Y. Lim, "Creative economy and leisure industry policy: Rationals in the social value-changing era", Korean Journal of leisure & recreation, vol. 38, no. 3, pp. 26-140, 2014.
- [7] S. J. Park, G. H. Park, "Government's Leisure Policy Task and Direction: Policy Tasks for Activating Women's Leisure Culture, Academic seminar resource book of Korean society of leisure & recreation, vol. 2013, no. 1, pp. 23-30, 2013.
- [8] S. Y. Kim, "Leisure Policy for Activating Family Leisure Activities", Academic seminar resource book of Korean Journal of leisure & recreation, vol. 2003, pp. 46-54, 2003.

- [9] Y. K. Noh, "Community leisure policy direction", Academic seminar resource book of Korean Journal of leisure & recreation, vol. 2003, pp. 56-65, 2003.
- [10] E. J. Kang, Y. H. Kim, H. S. Lee, "The Effect of Elderly Women's Leisure Constraints on the Leisure Satisfactio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Negotiation Strategies",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 vol. 29, no. 4, pp. 87~116, 2015.
- [11] C. W. Lee, "Grounded theory analysis on enforcement and application of leisure policy for middle-aged men, Korean Journal of Leisure", Recreation & Park, vol. 39, no. 3, pp. 48~63, 2015.
- [12] M. K. Cho, "An empirical study on the factors of leisure activity for the effectiveness of leisure policy", University of Seoul, Doctoral Dissertation, 2005.
- [13] T. K. Cho, "A Study of Enhancement of Leisure Policies in Local Government, 2007, University of Seoul", University of Seoul, Master's Thesis, 2005.
- [14]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Leisure and Policy", Dae-Wang Sa, Korea, 2008.
- [15] H. S. Jeon, "An Influence of Leisure experience of a person who takes part in leisure sports on Lif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leisure & recreation, vol. 34, no. 4, pp. 103-112, 2010.
- [16] S. H. Hong, S. E. Kim, "Constraints to Participation in Senior Welfare Centers: Focusing on the Difference of Regional Typ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6, no. 4, pp. 125-156, 2016.
DOI: <https://doi.org/10.15709/hswr.2016.36.4.125>
- [17] M. S. Park, "The Leisure Constraints and Leisure Life Satisfaction of the Institutionalized Elderly in Seoul-Focusing on the Free Institutionalized Elderly -",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43, no. 4, pp. 203-223, 2005.
- [18] S. H. Kim, "The Influence of Level of Satisfaction with Leisure Service Delivery by Local Government on Leisure Service Performance and Community Attachment", Korean Journal of leisure & recreation, vol. 37, no. 2, pp. 88-100, 2013.
- [19] C. W. Lee, H. S. Jeon, "Qualitative analysis for constructing community recreation center model - Verification of public leisure space presented in a specific district-, Korean Journal of leisure & recreation, vol. 17, pp. 167-182, 1999.
- [20] S. W. Jang, G. H. Kim, S. J. Kwon, "A study on the Effects of Leisure Recognition and Leisure Competence of the Middle-aged on Leisure Continuation",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56, no. 2, pp. 407-418, 2017.
DOI: <https://doi.org/10.23949/kjpe.2017.03.56.2.28>
- [21] K. J. Lee, G. S. Nam,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participation at the Leisure Activities to the Sense of Self-Respect", International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no. 53, pp. 49-72, 2011.
- [22] S. D. Lee, Y. S. Lim, "The Relationship between wellness and Participants of Leisure Program a Residential College", Korean Journal of leisure & recreation, vol. 36, no. 2, pp. 118-131, 2012.
- [23] W. D. Cho, B. W. Ahn, W. I. Song, "The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rvice satisfac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among golf range user's", Korean Journal of leisure & recreation, vol. 32, no. 4, pp. 119-132, 2008.
- [24] M. J. Lee, S. H. Hwang, "Leisure Constrain According to the Recreation Specialization Levels of Ski Participants", Korean society of leisure & recreation, vol. 3, no. 3, pp. 72-82, 2012.
- [25] Y. J. Kim, "The influences of leisure satisfaction through the malling on the intention for visit", Korean society of leisure & recreation, vol. 36, no. 1, pp. 44-58, 2012.
- [26] H. R. Kim, "The Effect of motivation of leisure activity on the leisure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Tourism Research, vol. 26, no. 1, pp. 115-130, 2011.
- [27] B. H. Cho, "A comparative analysis for the domestic and overseas theme parks through a study of the Korean theme park service model", Korean Journal of leisure & recreation, vol. 33, no. 3, pp. 33-43, 2009.
- [28] S. J. Park, J. H. Kim, "Study on the effect of the participation in sport leisure program of juveniles on self-identity", Journal of School Physical Education, vol. 17, no. 1, pp. 1-12, 2007.
- [29] K. J. Lee, S. K. Nam,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Participation at the Leisure Activities to the Sense of Self-respect - Centered on the Users of the Facilities for the Leisure of the Aged -",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53, pp. 59-81, 2011.
- [30] J. K. Kim, "The Influence of Leisure Attitude, Leisure Activity on Leisure Satisfaction: An Application of Regheb's Criteria",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and Sciences, vol. 21, no. 2, pp. 222-236, 1998.
- [31] G. H. Jeong, C. S. Won, "Relationship of Lifestyle, Leisure Recogni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and Sciences, vol. 17, no. 2, pp. 23-41, 2002.
- [32] D. H. Choi, B. Y. Kim, R. Y. Park, "The relationships among leisure recognition, leisure competence, leisure continuation and life quality of leisure sports participants", Korean Journal of leisure & recreation, vol. 34, no. 1, pp. 47-56, 2010.
- [33] S. H. Park, J. G. Park, S. L. Rhee, "The Impact of Perceived Respect from the Leisure Service Organization and Affective Loyalty on Intention to Continue Participation Among Participants for Leisure Service", Korean Journal of leisure & recreation, vol. 35, no. 1, pp. 67-75, 2011.
- [34] H. D. Woo, S. H. Hwang, "A Meta Analysis for Leisure Variables Influencing on the Quality of Secure Life", Korean Journal of Security Convergence Management, vol. 4, no. 1, pp. 23-42, 2015.
DOI: <https://doi.org/10.24826/KOSSCOM.4.1.3>
- [35] S. H. Choi,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middle-aged generation's recognition of leisure and values of sports on the motives for participation in leisure sports", Yonsei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9.

- [36] Y. G. Sim, "The Influence of leisure awareness on leisure commitment and sports value among secondary 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 in after-school activities", Kyung-Hee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2.
- [36] S. W. Jang, G. H. Kim, S. J. Kwon, "A study on the Effects of Leisure Recognition and Leisure Competence of the Middle-aged on Leisure Continuation",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56, no. 2, pp. 407-418, 2017.
DOI: <https://doi.org/10.23949/kjpe.2017.03.56.2.28>
- [37] Y. R. Jeong, "A Study on Leisure Activation Based on Leisure Activity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Soon Chun Hy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2.
- [38] W. Park, "Research for Secondary School Students Participation on Leisure Activities and Consciousness", Kookmin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1.
- [39] D. Y. Hyun, H. R. Lee, "The Effect of Motivation Factors of the Elderly's Leisure Activity on Leisure Satisfaction: Focused on the Mediation of Constraint Factors", Journal of Korea Policy Science, vol. 21, no. 1, pp. 25-51, 2017.

황 현 석(Hyun-Seok Hwang)

[정회원]



- 2000년 2월 : POSTECH 산업경영 공학과 (경영정보시스템석사)
- 2004년 2월 : POSTECH 산업경영 공학과 (경영정보시스템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한림대학교 한림경영연구소 연구위원
- 2004년 3월 ~ 현재 :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지식경영, 유비쿼터스 컴퓨팅, 데이터 마이닝